

『新編諸宗教藏總錄』所收『圓覺經』註釋書 分析

The Analysis on Annotation Books of Perfect Enlightenment Sutra
in the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최애리 (Choi, Ae Lee)*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圓覺經大疏』類 |
| 2. 『교장총록』 수록 『圓覺經』의 註釋書 分析 | 3.2 『圓覺經略疏』類 |
| 2.1 『圓覺經』의 성립 | 3.3 『道場修證儀』類 |
| 2.2 『圓覺經』註釋書 편성체계 | 4. 결론 |
| 3. 現存本 『원각경』 주석서의 계통별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1090년(元祐 5)에 찬술된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에 수록된 원각경부에 편성된 주석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교장총록에 수록된 『圓覺經』의 주석서를 기준으로 계통분석을 제안하였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원각경』의 주석서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大疏類, 略疏類, 修證儀類, 疏解類, 裴序類, 章解類 순으로 구성되어 교학과 수행을 학습할 수 있는 배치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원각경』 계통분석방법에서 주석서별 계통분석을 제안하기 위해 현존본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려 후기 의천의 교장도감을 통해 『圓覺經大疏』類, 『圓覺經略疏』類, 『圓覺經修證儀』類 등이 인출 유통되었으며 조선초 세조를 통해 인출된 한문본 불서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주석서류의 교학적 정수를 배울 수 있는 교학 불교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불어 간경도감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卷首部 구성을 가진 언해본과 을유자구결본 『圓覺經略鈔』가 교학적으로나 인쇄문화적인 전형이 되어 조선후기까지 원각경주석서의 표준이 되어 인출 유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要語: 의천, 교장총록, 종밀, 원각경, 주석서, 교장도감, 간경도감언해본, 을해자본, 을유자구결본, 원각경대소, 원각경소초, 원각경약초, 계통분석

* 고려대장경연구소 전임연구원(aeri76@naver.com)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6일
서지학연구, 제72집, 191-224,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191]

<ABSTRACT>

This study was wrote is 1090 by Uichon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check up about *Perfect Enlightenment-sūtra* Section organized annotation book contained in Gyojang Chongnok proposed a system analysis based on the standard.

Look in to relationship of *Perfect Enlightenment-sūtra* annotation book contained in Gyojang Chongnok are listed in DaesoClass, YaksoClass, SujungyuiClass, SohaeClass, BaeseoClass, JanghaeClass order is known arranging education and scholarship and meditation learning can do currently *Perfect Enlightenment-sūtra* in the method of analyze system classification annotation book to proposr analyze system the revised results status of extant book.

The latter part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Uichon's Gyojangdokam Wongakgyeong daeso, Wongakgyeong yakso, Wongakgyeong sujungyui, etc with drawl distributed the earli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through King Sejo chinese book Buddhist scriptures contained annotation book Gyojang Chongnok learn about the sprit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remain in existence education and scholarship buddhism significance. with through Gangyongdogam check on circulation only our country unique thhe front part have composition Eonhaebon and UlyujaKugyo Wongakgyeong with education and scholarship and printing cultural epitomised until the lat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commentary books of *Perfect Enlightenment-sūtra* books have been standard.

Key words: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新編諸宗教藏總錄),
Perfect Enlightenment-sūtra(圓覺經), Eonhaebon(診解本), Uichon(義天),
Gyojang Chongnok(教藏總錄), Jongmil(宗密), Gangyongdogam(刊經都監),
UlyujaKugyol(乙酉字口訣), Ulheja(乙亥字)

1. 서론

『圓覺經』의 원명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나 통칭적으로 『원각경』이라 한다. 번역은 북인도 闍賓國 승려 佛陀多羅(Buddhatrāta)가 했으며 번역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중국에서 찬술된 僞經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사상적면에서 『원각경』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존중되는 경의 하나이며 주석가로는 教禪一致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唐 宗密(780-841)이 독보적이다. 이러한 교선일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특성과도 잘 부합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의천은 『起信論』과 『華嚴經』의 내용을 반영하여 教宗과 禪宗을 동등하게 전하는 종밀의 주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教藏總錄』의 『圓覺經』 주석서의 절반인 9종을 宗密의 주석서로 편성하였다.

『원각경』의 계통을 밝히는 선행연구¹⁾에서 고려시대는 大藏都監本을 조사하고 조선시대는 『원각경』 원문에 주석을 포함한 간본들이 인출·유통됨에 따라 刊經都監本, 乙酉字本, 乙亥字本 등의 계통을 분석하였다. 이때 주석서의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원각경』 본류 아래 계통이 분석되기 때문에 주석서 성격에 따른 분석을 보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090년(元祐 5)에 찬술된 義天(1055-1101)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 원각경부에 편성된 주석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교장총록에 수록된 『원각경』 주석서를 기준으로 한 계통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석서의 성격에 따른 계통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첫째, 『교장총록』 원각경부에 편성된 체계를 살펴 편성 의도에 따라 구분한 『원각경』 주석서류의 전후 교학적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경전의 주석서류의 계통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인출·유통된 『원각경』 주석서의 교학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장총록』 수록 『圓覺經』의 註釋書 分析

2.1 『圓覺經』의 성립

경의 정식 명칭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 1부 1권으로 현존하며, 약칭으로 『大方廣圓覺經』, 『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了義經』 또는 『圓覺經』(이하, 『원각경』)이라 불린다.²⁾ 『원각경』은

1) 김미경, “『圓覺經』 버전의 系統과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한성대학교대학원, 2010).

2) 『大正藏』 17 No.842 913a-822a or 『高麗藏』 13 No.842 75b-88a.

693년 복인도 출신의 승려 佛陀多羅가 역출하였으나 성립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경전의 성립시기³⁾와 위경설⁴⁾에 대한 논쟁은 그간의 연구에 의해 현재는 7세기 말 8세기 초 중국에서 성립한 僞經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⁵⁾

역출장소와 역출인에 관한 언급은 唐 智昇(658-740)의 『開元釋教錄』(760年)⁶⁾과 『圓覺經大疏』에 따르면 『續古今譯經圖紀』(740年)에 번역의 역대가 자세하지 않다⁷⁾고 나타난다. 또한 宗密은 역출의 시기를 『圓覺經』 주석서인 『圓覺經大疏』, 『圓覺經道場修證儀』에서 長壽2年(693)說⁸⁾과 『圓覺經大疏鈔』에서 貞觀21年(647)說⁹⁾을 제시하고 있다. 역출장소, 시기, 역출인에 대해서 『開元釋教錄』과 종밀의 여러 주석서는 조금씩 상이함이 보인다.

이에 종밀 또한 정확한 연대나 역인 등은 확실치 않지만 진경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원각경』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승불교 사상의 청정원각을 체득하기 위한 修行體系와 根機에 따른 修行論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전중의 하나로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혀졌다.

『원각경』의 내용은 일체 중생 누구나 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이 원각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淸靜圓覺’이 어느 시점에서 幻으로 덮여 오염되고 오염된 원각을 원래의 청정한 원각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행의 실천을 권하는 경전이다.

2.2 『圓覺經』 註釋書 편성체계

『교장총록』¹¹⁾은 경·율·론 三藏이 아닌 註釋書인 章疏 목록으로 편성체계는 의천의 학문관인 성상 겸학의 입장에서 원효의 圓融 和諍과 친태 會通의 教觀兼修를 지향하여 각 종파의 교학적 이해를 돕는 역할 위해 만들어졌다.

『교장총록』 經部에는 『大華嚴經』을 필두로 47종, 律部는 『梵網經』을 시작으로 6종, 論部는 『大乘起信論』을 비롯하여 102종 아래 해당 주석서들을 담고 있다. 그 중 經部 『원각경』의 위치는 8번째로 18종의 주석서가 있으며 다음 <표 1>과 같다.

- 3) 場次了榮, “圓覺經翻譯年代考,” 『六條學報』 158(龍谷大學, 1914. 12. 15), 37-42.
김경숙(지은), “『圓覺經』의 修行論 研究 圭峰宗密의 思想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대학원, 2001), 10-13.
조운호, “『圓覺經』と宗密の『圓覺思想』,” (박사학위논문, 東京大學, 1998).
- 4) 望月信亨, 金嶺烈譯, 『佛教經典 成立의 研究』 (서울: 불교시대사, 1995), 426-437.
鄭承碩編, 『佛典解說事典』 (서울: 民族社, 1989), 253.
- 5) 曹潤鎬, “『圓覺經』解明의 視點: 經典成立史的 觀點から,” 『インド哲學佛敎學研究』 4(1996. 12), 54-66.
- 6) 智昇, 『開元釋教錄』 卷九(『大正藏』55 564c-565a).
- 7) 『圓覺經大疏』 卷上之二(『卍新續藏』9 (X.243), 335a).
- 8) 『圓覺經大疏』 卷上之二(『卍新續藏』9 (X.243), 335a), 『圓覺經道場修證儀』 卷四(『卍新續藏』74 (X.1475), 395b).
- 9) 『圓覺經大疏鈔』 卷四之上(『卍新續藏』9 (X.245), 537b).
- 10) 『圓覺經大疏』 卷上之二(『卍新續藏』9 (X.243), 335a).
- 11) 『新編諸宗教藏總錄』 3卷(『韓佛全』 4; 『大正藏』 55 No.2184).

<표 1> 『교장총록』 소수 『圓覺經』 주석서

| 구분 ¹²⁾ | 서명 | 권차 | 저자명 | 판본 저자명 | 대장경 입장현황 |
|-------------------|------------------------|----------------|-----|-------------------|---|
| 大疏類 | 圓覺經大疏 | 六卷 (或三卷) | 宗密述 | 終南山草堂寺 沙門宗密述 | 新纂卍續藏(X.0243): <大方廣圓覺經大疏>, 총3권(각권1-4구분), 宗密述 |
| | 圓覺經大疏科 | 二卷 (或一卷) | 宗密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大鈔 | 二十六卷 (或十三卷) | 宗密述 | 終南山草堂寺 沙門宗密撰 | 新纂卍續藏(X.0245): <圓覺經大疏釋義鈔>, 총13권(上下구분), 宗密撰 |
| 略疏類 | 圓覺經略疏 | 四卷 (或二卷) | 宗密述 | 唐終南山草堂寺 沙門宗密述 | 大正藏(T.1795(=X.0247)):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註>, 총2권(1-2분권), 宗密述 |
| | 圓覺經略疏科 | 二卷 | 宗密述 | 圭峯蘭若沙門 宗密製 | 新纂卍續藏(X.0246): <大方廣圓覺經略疏科>, 총1권, 宗密 製 |
| | 圓覺經略鈔 | 十二卷 (或六卷) | 宗密述 | 圭峯蘭若沙門 宗密於大鈔略出 | 新纂卍續藏(X.0248): <大方廣圓覺經略鈔>, 총12권, 宗密於大鈔略出. |
| 修證儀類 | 圓覺道場修證儀 | 十八卷 | 宗密述 | 終南山草堂寺 沙門宗密述 | 新纂卍續藏(X.1475): <圓覺經道場修證儀>, 총18권, 宗密述. |
| | 圓覺禮懺略本 | 四卷 | 宗密述 | 終南山草堂寺 沙門宗密述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道場六時禮 | 一卷 | 宗密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 | 一卷 | 淨源述 | 晉水沙門淨源錄 | 新纂卍續藏(X.1476): <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 총1권, 淨源錄. |
| 疏解類 | (圓覺經)疏 | 二卷 | 賢志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覺性樂 | 二卷 | 大軻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玄議 ¹³⁾ | 八卷 | 德素述 | 調査不可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解 | 二卷 | 法圓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裴序類 | (圓覺經)裴序助洪記 | 一卷 | 善聰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裴序鈔 | 一卷 | 仲希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章解類 | (圓覺經)地位章 | 一卷 | 道璘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 | (圓覺經)三觀扶宗息非 | 一卷 | 道璘述 | 散逸 | (대장경入藏 미상) |

주석서는 정장과 달리 불교사상적인면에서 그 지역의 시대성과 문화성을 내포¹⁴⁾하고 있다. 주석서의 발생은 경전에 나타난 표면적인 내용과 가르침의 깊고 얕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역대 諸宗의 제자들은 경전의 주석과 재해석을 통해 사상과 교학을 발전시켜왔다.

종밀은 『원각경』을 해석 할 때 다양한 인용 문헌들을 전거로 인용하였다. 종밀은 ‘料揀의 태도’와 ‘會通的 태도’¹⁵⁾ 기존의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으로 『원각경』에 대응경전으로서 최고 가치와 교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12) <구분>의 명칭은 18종의 주석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임의로 명명하였다.

13) 德素述, 『圓覺經玄議』 8卷 중 天順 6년(1462) 刊經都監 福간본인 卷2가 대전 복전암(선학원)에 소장 중이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에 본고에 신지 않았다.

14)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고찰,” 『서지학보』 31(2007. 12), 115-161.

15) 신규탁, “화엄 5조 종밀의 범성교학 현양,” 『禪學』 35(2013. 8. 30), 199.

의천 또한 화엄교리를 바탕¹⁶⁾에 두고 관법을 수용하여 일체의 법상을 融變하려 했다. 의천은 원효의 회통불교정신에 입각해 겸학을 중시했다. 이는 겸학을 회통의 열쇠로 본 때문으로 종밀의 회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기에 『교장총록』에 종밀의 주석서를 9종이나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각경』 주석서는 경, 율, 론 삼장 아래 1차(綱)로 교학관 따라 경전을 분류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그 아래 2차(目) 분류 기준 3가지를 적용하여 주석서를 편성하였다.

1차 분류는 교학관에 의해 경전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경우에는 기존 경록 체계인 『般若經』의 空宗 우선 보다 性宗의 『大華嚴經』, 『大涅槃經』과 교관점수의 『圓覺經』, 『法華經』을 읊부는 『梵網經』이 논부는 『大乘起信論』이 각각 위치한다. 각 부에서는 상위 경전과 연관되는 註釋類를 배치하고 편성의 마지막에는 觀法, 禮讚, 懺意를 비롯한 수행과 관련된 기타 章疏類를 배치하였다.

2차 분류는 주석서의 성격에 의해 1차 배치된 해당경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풀이해 놓은 주석서가 배치된다.¹⁷⁾ 이때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 ① 주석서의 성격이 포괄적 廣意에서 세부적 狹意로 편성
- ② 장소의 군집은 교학적 연관 및 내용구성에 따라 핵심 주제군에서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
- ③ 祖師 연대순과 종조에(지역) 따른 구분

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1>에 나타난 구분과 같이 ① 大疏類 ② 略疏類 ③ 修證儀類 ④ 疏解類 ⑤ 表序類 ⑥ 章解類의 6부류로 나누었다.

먼저 주석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석명의 일반적 의미를 도표로 정리¹⁸⁾해 보았다.

<표 2> 주석서명 일반적 용례

| 장소명 | 정의 |
|-----|--|
| 疏 | 經이나 論의 註釋書로 순서에 따라 문구를 자세히 해석하므로 文義疏·義疏라고도 하며 원래의 취지 등을 진술하는 것을 宣疏라 한다. 문장의 뜻에 따라 풀고, 전체적인 취지와 부분적인 의미를 분별하며, 우열을 판별하여 경론을 읽는 사람들이 막힘이 없도록 한다. |
| 鈔 | 疏의 문구에 주석을 붙인 것으로 글의 뜻을 요약하여 추려 엮은 책이다. |
| 科 | 경론을 해석하기 위해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별하는 것 科章, 科節, 科段, 分科라고도 한다. |
| 修證儀 | 이치를 증득하고 수행하는 법도(儀則) 곧 禮拜(예배), 참회(懺悔), 선정(禪定), 관찰(觀察) 등 수행 의규를 기록한 책이다. |
| 玄義 | 심묘한 의리(義理) 깊고 그윽한 뜻이나 경전 등을 해석할 때 그 낱말 글귀를 따르지 않고, 그 경의 글 뒤에 숨어 있는 참 뜻을 찾아내어 개론한 것이다. |
| 解 |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한 글이다. |

16) 김두진, “義天의 天台宗과 宋·高麗 불교계와의 관계,” 『仁荷史學』 10(2003), 189.

17) 최에리(2006), 117.

18) 홍법원편집부, 『불교학대사전』 (서울: 홍법원, 2001). ; 이지관, 『가산불교대사림』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2차 분류의 세부적 기준 중 첫 번째인 주석서의 성격이 포괄적 廣意에서 세부적 狹意인 편성의 경우이다.

『원각경』의 교학 이해와 청정원각 체득을 위한 수행을 광의적으로 풀어쓴 종밀의 주석서를 ① 대소류 ② 약소류 ③ 수증의류 3부류를 먼저 편성하였다.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좁은 의미의 주석서인 ④ 소해류 ⑤ 배서류 ⑥ 장해류 3부류를 배치하였다.

소해류에 편성된 장소는 현존 실물 미상이라 그 상세 내용까지 파악이 어렵지만 도표와 같이 주석서명의 일반적 용례로 볼 때 諸宗師의 『원각경』에 대한 세부적 주석서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배서류는 『圓覺經大疏』와 『圓覺經略疏』에 보이는 裴休(797-870)의 序에 대한 주석서로 보이고 장해류는 『원각경』 각 章의 위치와 삼관의 종지를 받들고 아닌 것을 가리는 의미의 세부 주석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장소의 군집이 교학적 연관 및 내용 구성에 따라 핵심 주제군에서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된 규칙을 적용한 경우이다.

① 대소류 ② 약소류는 각각 『원각경』의 전체 교학을 쉽게 알기 위한 <疏>와 疏에 문단을 나눈 <科文>, 그리고 다시 <疏>에 세부적으로 상세히 주석을 붙인 <鈔>로 구성되었다. 전후 개연성을 두고 대소류를 먼저 편성하고 다음으로 양이 방대하여 축약한 약소류를 배치하여 교학의 전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③ 수증의류에서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修證儀』와 수증의에서 예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한 의식집인 『禮懺略本』이 편성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六時禮』가 배치되어 있다. 현존하지 않지만 『修證儀』에 나타나는 六時¹⁹⁾에 관한 주석서로 예참 중 正坐思惟시 五種行法の 마지막인 발원 후 六時에 無常偈를 암송하는 것으로 예참법에서 가장 특징적²⁰⁾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修證儀』를 간략하게 엮은 『略本修證儀』를 두어 전후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해류는 종밀 이외의 諸宗師의 『원각경』 주석을 배치하였다. 주석을 하는 사람은 잘못됨을 분별하고 여러 책과 맞추고 해석함을 통해 이전 전통을 잇고 새로운 발전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의천은 종밀의 주석서 이외의 『원각경』 주석서를 편성하여 『원각경』의 대의가 드러나는 논리와 선학들의 교학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賢志術의 『疏』는 종밀의 『圓覺經大疏』나 『圓覺經略疏』와는 다른 성격의 <소> 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종밀의 주석서와 내용구성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지의 『소』 다음으로 보이는 大躬述의 『覺性樂』은 현존 실물 미상이므로 주석서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각경』에는 나타나는 覺性²¹⁾으로 보았을 때 수행을 통한 부처님이 될 가능성에 대한 주석서임을 추측해 본다. 또한 德素述의 『玄議』 비롯한 法圓述의 『解』도 현존실물 미상이라 상세한 주석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석서명

19) 『圓覺經修證儀』卷一(『卍續藏經』(新文豐版) 128, 742).

20) 池田魯參, “圓覺經道場修證儀の禮懺法(覺書),” 『印度學佛敎學研究』 35(1986), 121.

21) 『圓覺經』(大正藏) 17 No.842 915a. “善男子 覺性遍滿 清淨不動”

의 일반용례로 봤을 때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된 주석서로 보인다.

⑤ 배서류의 善聰述 『裴序助洪記』와 仲希述의 『裴序鈔』는 배후의 序에 대한 전후 개연성을 가진 주석이다.

⑥ 장해류의 道隣述 『地位章』과 『三觀扶宗息非』 또한 교학적 연관 및 내용 구성에 따라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린은 北宋僧으로 玉峯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²²⁾에 따르면 “三年八月二十有八日” 즉 “北宋哲宗元祐三年(戊辰, 1088)八月二十八(辛丑)日”년에 首座沙門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현존 판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음 세 번째에 제시할 근거인 祖師 연대순과 종조에 따른 구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내용 구성에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되었음을 확증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祖師 연대순과 종조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겠다. 수증의류에서 4번째로 편성된 『略本修證儀』는 북송대의 화엄승 晋水淨源(1011-1088)의 것이다. 의천을 통해서 중국에서 散逸되었던 많은 화엄 전적을 수집하기도 한 정원은 華嚴五祖說²³⁾과 인도의 馬鳴과 龍樹를 둔 七祖說을 주장하여 화엄종의 祖統說을 수립하였다. 정원이 편찬한 주석서들은 師順에 의해 징관·종말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의천은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²⁴⁾를 통해 佛典의 뜻이 論·疏·義·師의 역순으로 각각 그 해설과 도움을 통하여야만 비로소 그 온전한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뚫리고·밝혀지고·서술됨으로써 마침내 각 경전의 大義가 드러난다는 논리²⁵⁾를 펴고 있다.

이에 주석서의 특성상 각 종파의 조사에 의해 발생된 주석서들은 그 문도들이 교학적 이해 차원에서 재해석한 2, 3차 주석서들을 발생²⁶⁾ 시킨다. 따라서 같은 주제군에 묶인 전후 개연성을 둔 주석서는 반드시 師順과도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석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도린의 경우 또한 두 번째 근거인 장소의 군집이 교학적 연관 및 내용구성에 따라 핵심 주제군에서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열된 규칙을 적용할 때 현존하지 않기에 그 관계에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 沒年인 1088년에 해인원에서 수좌사문을 하였으므로 조사의 연대순에 따라 『원각경』의 주석서 하단부에 편성됨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우로 조사연대의 차이가 미비할 때는 연대순 배열보다 先位の 규칙이 우선임을 배후의 서문에 대한 주석서를 다룬 ⑤ 배서류에서 살펴볼 수 있다.

善聰, 仲希, 淨源은 비슷한 연대의 조사들로 선충²⁷⁾은 의천이 송나라에서 만난 화엄종의 淨源,

22) 『玉峯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 『慧因寺志』 卷之六碑記 72 (『中國佛寺史志彙刊』 20 No.0017).

23) 杜順(557-640) → 智儼(600-668) → 法藏(643-712) → 澄觀(737-839) → 宗密(780-841)

24) 『大覺國師文集』 권 15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韓佛全』 4, 553).

25) 김성수,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高麗 諸宗教藏과 華嚴經 章疏』 (서울: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110.

26) 최에리(2006), 135.

27) 『大覺國師文集』 권11, 『與大宋善聰法師狀』 3 (『韓佛全』 4, 546a14-23). “8세 때에 출가하여 19살 때 비구계를

有誠법사와 더불어 화엄학을 토론하던 三代법사 가운데 한 명이다. 중희는 북송대의 승려로서 長水子璿(965-1038)의 제자이다. 정원 또한 선종과 더불어 삼대 법사 중 한 명이며 자선의 제자이다. 즉 『원각경』 배서류에서 선종 다음으로 중희의 주석서가 편성된 것은 祖師 연대순의 규칙의 적용보다는 상위 규칙이 성립됨에 따라 다음 세부규칙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교장총록』은 초기 연구에서 대표경전 아래 동일 章疏名(=註釋書名)이 산발적으로 나타나 일정한 규칙이 없고 무질서하다²⁸⁾는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 의해 체계적인 분류를 가진다고 연구²⁹⁾ 되었다. 더 나아가 2차(目) 분류 기준 3가지를 적용하여 살펴볼 경우 주석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군집으로 배치된 것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처럼 통일된 분류개념이 있지 않던 시대에 이러한 편성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의천의 독특한 분류 방법이며 현대 분류 이론에 견주어 볼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목록은 결코 개별 주석서를 단순하게 모은 것이 아닌 의천의 학문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원각경』 주석서의 대부분이 현존되지 않지만 주석서가 가지는 교학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이 가능하였고 더불어 주석서류의 전후 교학적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現存本 『원각경』 주석서의 계통별 분석

3.1 『圓覺經大疏』類

3.1.1 『圓覺經大疏』6(或3)卷

唐 張慶3年(823)에 중밀의 ‘教禪一致’의 관점에 따라 『원각경』을 풀이한 주석서로 본 서명은 『大方廣圓覺經大疏』(이하 『원각경대소』)이다. 중밀은 草堂寺에서 長慶元年(821)正月에서 3年(823) 겨울까지 『圓覺經大疏』 3卷과 『圓覺經大疏科』 2卷을 撰述했다. 『원각경대소』는 『원각경』을 읽고 큰 뜻을 품어 연구한 커다란 첫 성과물로서 『원각경』 연구의 결정 관³⁰⁾이기도 하다. 배후의 序에 나타난 『원각경대소』의 권수는 3권이며 『교장총록』 集成 당시는 6권과 3권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받았고 20년간 『화엄경』을 배웠으며 이후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서 법왕(法王) 원지(元智)에게 법을 받았다.”
 28) 大屋徳城,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15권3호(東洋學會, 大正15:1926), 285-362.
 29)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30) 境野哲, 『支那佛敎史講話 上』(東京: 共立社, 昭和2[1927]), 576-590.

대장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嘉興藏』(No.1681) 『圓覺經大疏』 12卷 唐釋宗密撰_部別:續藏 / 法寶總目錄經號:1680 / 千字文函號: 續藏 32函
- ② 『嘉興藏新文豐版』 18 續藏 (No.27) 『大方廣圓覺經大疏』 12卷 唐 宗密述
- ③ 『乾隆藏』 135 (No.1563) 『大方廣圓覺經大疏』 12卷 唐 宗密述_部別: 此土著述
- ④ 『中華藏』 92 (No.1781) 『大方廣圓覺經大疏』 3卷 唐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_底本: 清藏本
- ⑤ 『新纂卍續藏』 9 (No.243) 『圓覺經大疏』 12卷 唐 宗密述_部別: 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七 方等部疏 = 『卍續藏經』(新文豐版) 14 215a1-405b6

5중 중 『中華藏』만 『교장총록』과 같은 권수이며 나머지는 12권으로 상·중·하 3권 본에 각권 1-4권 세분하여 권수 차이가 보인다.

『卍新續藏』에 따른 卷首部 구성을 살펴보면 裴休의 序³¹⁾가 보이고 다음 줄에 저자사항이 나타난다. 그 다음 本序인 ‘大方廣圓覺經大疏’의 書題가 나타나고 저자표기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로 되어 있고 序文³²⁾이 시작된다. 다음으로 大方廣圓覺經大疏目錄이 나타나는데 卷尾에 ‘疏科文上下卷’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권미에 나타난 과문의 상·하권을 대장경에서는 찾을 수 없다. 12卷(下卷之四下) 卷末에 明萬曆丁未(1607)冬十月徑山寂照庵에서 明 禮部主事 沈韞의 간행 이유와 간행에 필요한 자수 계산과 경비를 산출해 놓은 奉爲³³⁾가 나타난다. 봉위에도 자수 계산시 과문은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살펴볼 현존본 불명인 『圓覺經大疏科』 散失과도 연관된다.

국내에서 현존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³⁴⁾를 통해 확인된다.

<표 3> 일본 『원각경대소』 유통본

| 書名 | 著者 | 卷 | 刊記 | 刊寫處 | 所藏 | 請求記號 |
|----------|-------|-------|----------------|--------------|-----|-------------------|
| 大方廣圓覺經大疏 | 唐釋宗密撰 | 3卷6冊 | 延寶三年 (1675) | 京都秋田屋平左衛門 刊本 | 新潟大 | 佐野文庫 子13 0 20佐 |
| 大方廣圓覺經大疏 | 唐釋宗密撰 | 12卷6冊 | 延寶三年 (1675) | 秋田屋 刊 | 九大 | 183 夕 6 |

31) 大方廣圓覺經疏序 / 唐江西道觀察使洪州刺史兼 御史大夫裴休述 “夫血氣之屬必有知 凡有知者必同體 … 無以自効 輒直讚其法 而普告大衆耳 其他備乎本序云.”

32) 元亨利貞乾之德也 始於一氣 常樂我淨佛之德也 … 使游刃之士無假傍求反照之徒不看他面斯其志矣 大者絕諸邊量方廣正而含容圓者德無不周覺者靈源不昧修多羅總指諸部了義者 別歎斯文經者貫穿義華以之攝化羣品故云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也.

33) 『新纂卍續藏』 9 (No.243) 『圓覺經大疏』 12卷, 0418b14-0418b24.

34) 전국 한서 데이터베이스(全國漢籍データベース)는 일본의 주요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漢籍’의 서지 정보에 대해서 전통적인 ‘經·史·子·集’의 四部分類(叢書部를 더한 5분류)에 근거하여 수집 등록된 연합 한적 목록 데이터베이스이다. <http://kanji.zinbun.kyoto-u.ac.jp/kanseikiyogikai/> (검색일자: 2017년 10월 현재).

3.1.2 『圓覺經大疏科』2(或1)卷

본 서명은 『大方廣圓覺經大疏科』(이하 『원각경대소과』)이다. 『원각경대소』의 경문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별하여 시각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것이다. 교장총록에는 『圓覺經大疏科』 2卷(或1)으로 나타난다.

科文은 동아시아불교의 주석 전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문장 해석의 도구이자 그 자체 독특한 문헌 장르로서 불교의 학문 전통과 교육 전통의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⁵⁾ 그러나 『원각경대소과』는 산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凝然(日本, 1240-1321)의 『華嚴宗經論章疏目錄』에 『원각경대소과』 3권이 보이지만, 응연의 3卷은 『圓覺經大疏鈔科』 3卷과 混同한 것이라 볼 수 있다.³⁶⁾ 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원각경대소』 『新纂卍續藏』 9 (No.243) 권말에 간인을 위한 字數 산정에서 科文이 제외는 사실에 明萬曆丁未(1607)에는 이미 과문이 산실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며 『원각경대소과』의 산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高麗續藏雕造攷』에서는 高山寺 소장에 소장되어 있는 紹興年間の 宋 重刊本으로 추정되는 卷下³⁷⁾본 『大方廣圓覺經大疏鈔科』를 현존본으로 밝혀 놓았다. 『新纂卍續藏』 9(No.244)³⁸⁾에 입장된 『大疏鈔科』 3권본은 唐 圭峯 蘭若沙門 宗密 製로 中, 下가 입장되어 있다.

3.1.3 『圓覺經大疏鈔』26卷(或13卷)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大疏鈔』, 『圓覺經大鈔』, 『圓覺經大疏釋義鈔』(이하 『원각경대소초』)의 이명이 있다. 『원각경대소초』는 불교에 한정되지 않고 유교와 도교의 전적도 인용한 백과사전식의 체제를 갖춘 주석서로 『원각경대소』를 자세히 풀이하였다. 배후 서에 나타난 『원각경대소초』의 권수는 13권이며 13권을 상·하로 나눈 26권본이 『교장총록』 集成 당시에 유통되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 『新纂卍續藏』 9 (No.245) 『圓覺經大疏釋義鈔』 26卷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撰 部別：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七 方等部疏 = 『卍續藏經』(新文豐版) 14에 입장되어 있다.

卷首部 구성을 살펴보면 大方廣圓覺經大鈔序가 보이고 다음으로 ‘茲鈔自唐至今固有年矣…此皆據寫本而正之 其餘未安 留俟鎔裁矣’와 행을 달리하여 평강부 곤산 능인원의 사문 원혜의 교정사실이 적힌 ‘時紹興戊午歲孟春初六日 平江府崑山能仁院 沙門義和穎脫軒校定 門人 元慧’가 나타난다.

35) 조은수, 서정형, “불교의 주석 전통과 과문(科文)의 발달,” 『불교학연구』 41(2014), 3.

36) [佛書解說大辭典編纂會 編], 300-301.

37)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 図板卷上 (京都: 便利堂, 昭和12[1937]), 69.

38) 部別：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七 方等部疏 = 『卍續藏經』(新文豐版) 87, 圭峯 蘭若沙門 宗密 製,

서문에 이어 권수제 ‘圓覺經大疏釋義鈔卷第一’이 보이고 다음 행에 저자표시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撰’이 나타나며 행을 달리하여 십문분별의 본문이 시작된다.

현존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卷第13>: 宋 重刊本(1319, 紹興9年), 高山寺 소장

『大方廣圓覺經大疏鈔科』 권말에 “규봉선사가 해석한 원각경대소초는 오직 해동에만 판본이 있고, 송의 사본은 글자가 잘못된 것이 많았다. 소흥연간(1131-1162)에 원중국사 의화가 (고려의) 인본을 찾아 간행하였다.”³⁹⁾고 되어 있다. 위 기사로 추측해보면 고산사에 있는 송의 중간본의 원간본은 고려본일 가능성도 있다.

판사향은 上下單邊, 無界, 1面: 30.3×11.0cm 7行23字의 절첩본이다. 『高麗續藏雕造攷』에 권수제가 『圓覺經大疏釋義鈔』인 권제13(上/下)의 卷首, 卷末 사진이 수록⁴⁰⁾되어 있다.

② <卷第13>: 간경도감(1462, 世祖8年), 송광사 소장(교장도감번각본 1093, 宣宗10年)

刊經都監에서 世祖 8년(1462)에 宣宗 10년(1093) 教藏都監본을 번각한 것이다. 판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려제종교장학술발표자료집을 참고하였다.⁴¹⁾ 권말에는 1093년에 教藏都監에서 간행된 것을 1462년 간경도감에서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원간기 ‘大安九年癸酉歲(1093)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와 중수기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가 나타난다.

크기는 34.6cm×30.8cm이고, 零本 1책의 전체 49張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원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左右單邊을 판각하여 線裝本 형태로 製冊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은 藁精紙가 섞여 있는 楮紙이다. 표제서명은 인쇄형태의 ‘圓覺經大疏釋義鈔’가 26.0×5.1cm 크기의 題簽형식으로 되어 있다. 내지에는 ‘圓覺十三’이라 목서가 있다. 권수제는 ‘圓覺經大疏釋義鈔’이고 저자 표기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 撰’으로 되어 있다. 판미제는 ‘圓覺密抄’인데 이는 교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경전, 저자, 주석서순의 독특한 간략명 조합법이다.

3.2 『圓覺經略疏』類

3.2.1 『圓覺經略疏』4卷(或2卷)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略疏註』, 『大方廣圓覺略疏註經』, 『大方廣圓覺略疏註』, 『大方廣圓覺略

39) 大屋徳成(1937), 69. “吾祖圭峯禪師, 所釋圓覺有大疏鈔, 唯海東鏤版, 此方寫本, 訛舛猶多. 紹興 間, 有圓證講師 諱義和, 根尋印本, 募緣刊木.”

40) 大屋徳成(1937), 57-58.

41) 남권희, “간행본 教藏의 서지분석,”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教藏,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118.

疏』, 『圓覺經略疏註』, 『圓覺略疏註經』(이하 『원각경약소』)이라 한다. 배후 서에 나타난 『원각경약소』의 권수는 兩권본으로 『교장총록』集成 당시에는 2권본을 一, 二로 나눈 4권본도 유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宗密은 『圓覺經大疏本序』와 『圓覺經略疏序』에서 『원각경』에 대한 자신의 註釋書인 『원각경대소』와 『원각경대소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을 위해 그 내용 중 핵심만을 추려 다시 撮要하여 『원각경약소』를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각경약소』는 『원각경대소』에 비하면 경론의 인용이 상당히 적고 교선일치의 입장에서 『원각경』을 法性宗에 두고, 부분적으로는 화엄과 같음을 드러내고 선양하는 내용이다.

대장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毘盧藏』 衡(536) (No.1284)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序唐裴休撰 唐宗密述
- ② 『永樂南藏』 石(636) (No.1609) 『大方廣圓覺經略疏註』 部別：此方撰述
- ③ 『乾隆藏』 134 (No.156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 唐 宗密述 部別：此土著述 / 頁數：433 / 卷數：5 千字文：最
- ④ 『縮刻藏』 律 9 (29) (No.168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 唐宗密述 部別：支那撰述-經疏部 / 卷數：4
- ⑤ 『大正藏』 39 (No.179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 唐 宗密述 部別：經疏部七 / 頁數：523 / 卷數：2 (相關經典：縮-律9, 續-1.15.1, 國-經疏12; 參考資料：cf. No. 842)
- ⑥ 『佛教大藏經』 62 (No.185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註』 唐 宗密述 部別：經疏部四 / 頁數：519 / 卷數：4
- ⑦ 『中華藏』 92 (No.1779)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 唐終南山草 寺沙門宗密述 頁數：142 / 卷數：2 / 底本：明萬曆年間重刊南藏本
- ⑧ 『新纂卍續藏』 9 (No.247) 『圓覺經略疏』 唐 宗密述 部別：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七 方等部疏 / 頁數：789 / 卷數：4 = 『卍續藏經』(新文豐版) 15 550b14-576c3

『大正藏』과 『中華藏』은 2권, 『乾隆藏』 5권 나머지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卷首部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권수의 첫 번째로 배후의 서와 행을 달리하여 소속, 직위가 표시된 저자표기가 나타난다.⁴²⁾ 다음으로 종밀의 序⁴³⁾와 행을 달리하여 찬자명이 보인다. 『원각경약소』의 序는 『원각경대소』와 같으나 끝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문에 이어 권수제가 보이고 행을 달리하여 저자표시가 나타나며 다시 행을 달리하여 십문분별을 시작⁴⁴⁾으로 경의 풀이가 시작된다. 종밀의 주석서 중 『원각경대소』와 『원각경약소』에서만 裴休의 序가 있으나 세조년간의 『원각경약

4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序 /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尚書門下平章事充集賢殿大學士裴休撰 “夫血氣之屬必有知 凡有知者必同體 所謂真淨明妙虛徹靈通 卓然而獨存者也 … 休常遊禪師之闔域 受禪師之顯訣 無以自効 輒直讚其法 而普告大衆耳 其他備乎本序云。”

43)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序 / 唐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 “元亨利貞乾之德也 始於一氣 常樂我淨佛之德也… 勒成三卷 以傳強學 然上中下品 根欲性殊 今將法彼曲成 從其易簡 更搜精要 直註本經 庶即事即心 日益日損者矣. 밑줄친 부분이 『원각경대소』와 다른 부분이다.

4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註卷上之一 /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 “將解此經 十門分別 一教起因緣 二藏乘分攝 三權實對辯 四分齊幽深 五所被機宜 六能詮體性 七宗趣通別 八修證階差 九通釋名題 十別解文義…”

소초』에도 裴休序가 포함되며 이때 배후서를 주해한 如山 注가 포함된다.

『원각경약소』는 『원각경』의 다른 주석서들과는 달리 권수제가 ‘大方廣圓覺略疏注經’으로 되어 있어 주석서 계통 분석에 크게 혼선이 없는 주석서이다.

현존하는 『원각경약소』는 (1) 국내송판본각본, (2) 중국유통본, (3) 일본유통본으로 나눌 수 있다.

3.2.1.1 국내송판본각본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7종으로 다양한 장정형태이나 板首題에 동일형식의 권차, 책수, 장차가 나타나고, 四周單邊(間混左右雙邊)의 有界, 半郭은 22.1×13.3cm이고 전광은 52.4cm, 1面 5行13字(小字20字) 전광20行 註雙行 배자된 동일한 판식이다. 그러나 호림박물관본은 전광25행으로 한 면의 행수가 6-7행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수제 표시 또한 ‘方四’로 되어 있다. 또한 25행의 판목을 4등분하여 2장이 나오도록 제작하였기에 글자가 접혀져 나타난다.

아단문고본 卷上一의 권수부 序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장경본과 동일하게 배후의 序가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보이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註卷上并序’는 종밀 序題名과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서가 끝나면 권수제 없이 바로 경문이 나타난다.

천태박물관(보물 제963호) 卷下一본과 아단문고본은 欄外와 書眉에 墨書注가 있으며, 복장유물⁴⁵⁾인 기림사본을 제외하고 모두 경문 사이에 세필로 구결이 표시되어 있다.

기림사 소장본은 정확한 인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자체는 송판계통에서 흔히 보이는 구양순체의 특징이 여실히 보이며, 인쇄 상태는 마치 목활자로 인출된 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먹색이 균일하다.⁴⁶⁾

이상의 보물로 지정된 6종과 판식이 다른 호림박물관본을 통해 국내 『원각경약소』는 두 종류의 판본이 있으며 이 7종을 합하면 2권 4책의 전질이 된다.

<표 4> 『원각경약소주경』 유통본

| 소장자 | 권차 | 장정 | 책크기 | 판수제 | 유물번호 |
|-------------|------|-----|-------------|-----|---------------|
| ① 아단문고 | 卷上一 | 선장 | 29.1×17.6cm | 上一 | 보물 제893호 |
| ② 국립중앙박물관 | 卷上一 | 선장 | 34.3×19.7cm | 上一 | 보물 제1080호 |
| ③ 기림사 | 卷上之二 | 포배장 | 30.8×18.8cm | 上二 | 보물 제959-2-24호 |
| ④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卷上之二 | 선장 | 34.4×19.4cm | 上二 | 보물 제1016호 |
| ⑤ 리움박물관 | 卷上之二 | 포배장 | 34.3×19.0cm | 上二 | 보물 제938호 |
| ⑥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卷下一 | 포배장 | 34.2×19.0cm | 下一 | 보물 제963호 |
| ⑦ 호림박물관 | 卷下之二 | 호접장 | 30.0×15.9cm | 方四 | 보물 제1171호 |

45) 박상국, “祇林寺 毘(毗)盧舍那佛像 腹藏經典에 대하여(하),” 『서지학보』 2(1990), 155.

46) 김미경(2010), 20.

고려시대에 宋板本을 저본으로 판각한 송판번각본은 송판계통의 교장의 판식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보물 제891호로 지정된 『大方廣佛華嚴經疏』와 더불어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송판번각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규장각 소장(一簣 古貴 294.334-B872w) 卷下之一-下之二의 1冊이 있다. 인출시기 미상이며 卷下之一은 천태박물관본의 후쇄(보판보입)본으로 계선이 끊어지고 인쇄가 고르지 못해 나뭇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2장 다음 바로 제3장이 보이는데 이때 제2장은 1, 4면만 인출된 것으로 제책 본을 위한 의도적인 5행 인출 과정에서 2, 3면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 권말 31장과 32장은 ‘卍’자가 ‘卍’자로 판각되어 보판의 흔적이 보인다.

卷下之二는 호림박물관본과 동일판본의 후쇄본이나 인출시 제1장 卷首의 빈 첫 행을 찍지 않고 24행으로 인출하였고 제2장부터 25행의 글자가 겹쳐지지 않도록 12행과 13행으로 인출하여 제책시 다시 6행과 7행으로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필사나 재인출하여 補入한 것이 확인된다. 규장각소장본은 판본 다르지만 지질이 같고 여말선초의 구결이 고르게 보여 비슷한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여 진다.

3.2.1.2 중국유통본

<권상>: 宋刊本, 中國國家圖書館 소장(목판본, [宋版])

권수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并序’이며 저자표시는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이다. 宋版으로 ‘卷上’의 영본 1冊 24張(제1張은 2折 缺落)의 목판본이다. 간기, 서문 등이 전하지 않아 간행한 연도나 간행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장정은 折帖裝(1張 5面)이며, 판식은 5行12字(小字20字) 전광25행이며 변란이 없고 5折 1張 크기는 29.5×11.2cm이다. 面數는 2面 68枚이며 1張 크기는 58.3cm 광고는 22.9cm이다. 앞서 살펴본 호림박물관본의 판식과 거의 유사하다.

3.2.1.3 일본유통본

① <권제2>: 필사본(시기미상), 金澤文庫 소장

가마쿠라(鎌倉)시대의 변란과 계선이 없는 필사본으로 卷2만 남아있다. 행자수는 8-9行16-19字이며 한문을 일본어순으로 읽을 수 있는 요미구다시(讀(み)下し)와 懸吐에 해당하는 訓点이 표시되어 있고 필사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권제2>: 필사본(시기미상), 東大寺 소장(111函 56号)

필사자와 필사연대를 알 수 없는 필사본이다. 책 크기는 27.0×17.3cm이고 행자수는 8行17字이며 변란과 계선이 없다.

③ <권상, 하>: 필사본(시기미상), 大須文庫 소장

표지서명은 '圓覺經略疏注'이며 권수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고 저자사항은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이다. 상권 권수에 배후의 '略疏注經序'가 나타나며 서명은 '大方廣圓覺略疏注經書'로 되어있다. 장정은 假綴本으로 책 크기는 28.5×21.1cm이며 행자수는 16행字數不定이다. 經文에 訓點이 표시되어 있다.

④ <권제1-4>: 일본刊本(木活字本, 1626, 寬永3년), 天理圖書館 소장(183- 4 477)

4卷 4冊 木活字本으로 에도(江戶)시대 寬永 3년(1626) 간본이다. 권4말 '寬永三(丙寅)曆三月吉辰 刊摺之畢'의 간기가 나타난다. 장정은 線裝(4針綴)이며, 판식은 10行20字, 책크기 28.2×20.4cm이다. 卷首部는 기본 구성을 충족하는 배후서와 종밀서가 나타나고 各卷末 面紙(4卷의 경우는 卷首)에 睿峯 盛憲의 墨書 기록과 署名이 보인다.

⑤ <권제1-4>: 일본刊本(室町초기), 東洋文庫 소장

전체가 배제되어 있으며 표지와 포갑장정에 '古異版'이라 되어 있다. 책크기 27.5×20.2cm, 광고는 23.6cm이다. 上下單辺, 無界, 8行13字(小字14行20字)이다. 권2 7-8장을 필사 보입하여 '卅十四, 卅十五'의 張次를 표시했다. 난외에 목서가 다수 있으며 판각 및 목서 훈점 經文에 朱點, 요미구다시가 있다. 간혹 卷下권의 장수표기가 5행과 6행 사이에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권자장 인출된 판본을 線裝으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⑥ <권제1-4>: 일본刊本(1644, 寬永21年), 慶應大學 소장

이 판본은 표지서명은 寬永二十一年(1644) 京都村上勘兵衛의 刊本으로 '圓覺經略疏注經'이며 권수제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이고 저자사항은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述'이다. 판식은 "圓覺經"이며 장정은 線裝(4針綴)이다. 판식은 上下雙辺, 無界, 8行17字(小字16行17字)로 판각 및 목서 훈점과 經文에 句讀點인 朱點, 요미구다시가 있다. 卷首部는 배후의 序와 종밀의 序 다음 권수제가 없이 바로 본문이 나타났다. 京都村上勘兵衛에서 간행된 동일한 판본 전권은 高知大, 東大總, 東北福大, 大谷大 있고 영본은 千葉縣立中央에 2卷 1冊이 있다.

3.2.2 『圓覺經略疏科』 2卷

『圓覺經略疏科』는 『원각경약소』를 상세하게 分科하여 科文을 붙인 것이다. 종밀이 『원각경대소』와 『원각경대소과』를 찬술한 것은 821-823년간이다. 『원각경약소』는 『원각경대소』를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원각경약소』와 『약소과』의 찬술연대는 적어도 823년(長慶 3년) 이후가 된다. 구성은 裴休 서문에 綱要를 설하고 거기에 科判을 하고 있다.

대장경 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新纂卍續藏』 9 (No.246) 『大方廣圓覺經略疏科』, 1권, cf. 『교장총록』과 권수 차이가 남⁴⁷⁾
- ② 『中華藏』 92 (No.1777) 『大方廣圓覺經略疏科』 唐圭峯蘭若沙門宗密制 _ 頁數 : 125 / 卷數 : 1 / 底本 : 明永樂北藏本
- ③ 『中華藏』 92 (No.1778) 『大方廣圓覺經略疏科(別本)』 圭峯蘭若沙門宗密制 _ 頁數 : 134 / 卷數 : 1 / 底本 : 清藏本

현존하는 판본은 중국유동본뿐이다.

- ① <(권7)>: 필사본(시기미상), 山西省圖書館 소장.

산서성도서관 소장본은 권미제에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上’으로 기재되었으나 『圓覺經略疏科』 권7이며 권자본으로 卷軸이 없는 필사본이다. 『圓覺經略疏科』는 2권본이나 경문까지 필사하였기에 권상에 해당하는 필사 권수가 7권인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으로 상단에 科判과 하단에 『圓覺經略疏』의 경문을 配對하고 있다. 한 장 길이는 51.3cm이고 광고는 31.3cm이다. 상단과 하단의 경계를 눌러 표시한 壓線과 경문 사이에 접은 선의 표시가 있다. 권상의 권미제 간사기에는 송의 日新이 『圓覺經鈔疏科文』 7권을 필사한 ‘南瞻部洲大宋國絳州曲沃縣喬山鄉山許村穎川郡學究許日新寫圓覺經并抄疏科文七卷’ 기록은 있으나 간사년은 없다.

3.2.3 『圓覺經略鈔』 12卷(或6卷)

『圓覺經略鈔』, 『圓覺經略疏之鈔』, 『圓覺經略疏鈔』(이하 『원각경약초』)로 불리 운다. 宋 明義大師 思齋의 序에 『圓覺經略疏』 2권을 상세하게 풀이한 것이 『원각경약초』라 한다. 『圓覺經大疏』 배후의 序에 ‘小鈔六卷’으로 되어 있으나, 『교장총록』에 ‘12권 혹 6권’이므로 의친 당시 12권본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장에 수록된 卷首部 구성을 살펴보면 권수의 첫 번째로 明義大師 思齋의 序⁴⁸⁾가 있고 행을 달리하여 찬자명과 내용이 보인다. 다음으로 행을 달리하여 권수제와 저자사향이 보인다. 저자사향 다음에는 『원각경약초』의 저자사향에서 큰 특징인 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大鈔略出’이 보인다.⁴⁹⁾ 저자사향 다음으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經題와 總題를 해석하고, 다음에 저자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본문에는 大綱을 서술하고, 각각의 章에 대해 주석하며, 마지막으로 慶讚廻向하는

47) 권수제는 ‘圓覺經疏前序科文上’으로 권미제는 ‘圓覺經疏前序科文下’로 나타남.

48) 大方廣圓覺經略鈔序 / 吳門傳教臨壇賜紫明義大師思齋述 “修身者何戒律而已矣融心者何圓覺而已矣… 皇宋康定二年辛巳歲杓建鶉味月望日謹序.”

49) 大方廣圓覺經略鈔卷第一 / 圭峯蘭若沙門宗密於大鈔略出 “將釋略疏二卷文二初題目二一標總題二顯述者二本文三一總敘大綱三一顯理二一示覺之心體二一辨其要二一約果德標指心源二一舉類 疏元亨等等且舉周易乾卦之德而爲類也然此國之俗所宗者羣典極於周易萬物極於乾道 … 天行健(行者運動之稱健者強壯之名天之自然象也萬物壯健皆有) … 文言云(夫子作文言以釋周易正經也此下釋乾字云)…”

것으로 마치고 있다.

대장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 ① 『永樂北藏』 187 (No.1725)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于大疏略出 _ 部別：大明續入藏諸集 / 頁數：1 / 卷數：30 千字文：治-於
- ② 『嘉興藏』 治(649)-於(651) (No.1622)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于大疏略出 _ 部別：大明續入藏諸集 / 法寶總目錄經號：1621 千字文 / 函號：[正藏]
- ③ 『嘉興藏新文豐版』 [正藏] 7 (No.1270)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述 _ 頁數：647 / 卷數：29
- ④ 『乾隆藏』 134-135 (No.1562)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於大鈔略出 _ 部別：此土著述 / 頁數：541 / 卷數：25 千字文：最精宣
- ⑤ 『縮刻藏』 25 (No.1686)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於大鈔略出 _ 部別：支那撰述-經疏部 / 千字文：律 9 (29)-律 10 (29)
- ⑥ 『佛教大藏經』 62 (No.1856) 『圓覺經略疏之鈔』 唐宗密於大鈔略出 _ 部別：經疏部四 / 頁數：603 / 卷數：25
- ⑦ 『中華藏』 92 (No.17800) 『圓覺經略疏之鈔』 圭峯蘭若沙門宗密於大鈔略出 _ 頁數：189 / 卷數：25 / 底本：明永樂北藏本
- ⑧ 『新纂卍續藏』 9 (No.2480) 『圓覺經略疏鈔』 唐宗密(於大疏略出) _ 部別：中國撰述 大小乘釋經部七 方等部疏 / 頁數：821 / 卷數：12 = 『卍續藏經』(新文豐版) 15

현존하는 『원각경약초』는 (1) 乙亥字本, (2) 乙亥字번각본 (3) 간경도감언해본 및 번각본 (4) 乙酉字 구결본 및 번각본 (5) 일본유통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3.2.3.1 을해자본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 大字는 세조 글씨로 中字 및 小字의 姜希顔의 글씨를 저본으로 주조한 동활자이다. 을해자본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인 세조 3년(1457) 9월에서 7년(1461)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妙法蓮華經』,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언해)』, 『永嘉大師證道歌』, 『天台四教儀集解』,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 인출되었다.⁵⁰⁾ 이때의 인출된 『원각경』이 바로 『원각경약초』이다.

卷首部 구성은 明義大師 思齋述의 ‘大方廣圓覺經略鈔序’와 『원각경대소』와 『원각경약소』에만 나타나는 裴休의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略疏注序’로 저자표기 裴休撰; 宗密科; 如山註序가 보이고 다음으로 종필의 약소서 경문 아래 『원각경약소초』 주해를 실고 있다.

저자표기는 ‘圭峯蘭若沙門宗密於大鈔略出’이고 권수제는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卷一并序’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이후 을해자 번각본도 동일하다. 더불어 을해자본 뿐만 아니라 간경도감 언해본과 을유자본의 권수부도 동일하다. 이때 ‘圭峯蘭若沙門宗密於大鈔略出’은 빠지고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疏鈔’로 표기된다.

50) 송일기,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1호(2015), 228-231.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9行16字(小中字21字) 註雙行, 半郭은 26.8-27.0×19.7-20.0cm이며 판심 제는 圓覺經이고 上下內向黑魚尾의 白口이다.

① <권제2-5>: 金屬活字本, 乙亥字, 고려대도서관 소장(貴44C)

비록 零本이나 아직 현존하는 완질의 초간본이 없는 희귀본이다. 표지에 능화문이 있고 간경도감 본 인본에 주를 이루는 18쪽⁵¹⁾ 藁精紙에 인출되었다. 卷3의 卷末題에 ‘大廣放圓 …… ’ 중 ‘廣放’에 교정표시(∪)가 있는 등 각 권 欄上에 교감 표시가 있고 이에 따른 각권 권수제 欄上에 校正印(四角朱印: 2.0×1.3cm)이 나타난다. 半郭 26.9×19.7cm, 책 크기 36.7×25.0cm이며 表紙 右下端에 ‘臥雲’과 卷5 面紙內墨書로 ‘法寶臥雲’의 所藏者名이 나타난다.

② <권제3>: 金屬活字本 乙亥字, 고려대도서관 소장(만송-貴44B)

권3의 제4장右-121장까지 앞, 뒷장이 缺落된 零本이다. 部分적으로 藁精紙가 섞였으나 상당수가 12쪽 楮紙이다.

③ <권제4>: 金屬活字本 乙亥字,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

고려대도서관본과 동일한 판식이며 半郭 26.8×20.0cm, 책 크기 34.4×24.6cm이다.

④ <권제1>: 金屬活字本 乙亥字,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소장

을해자본과 동일한 판식이며 半郭 27.2×20.0cm, 책 크기 35.3×25.0cm이다. 권1을 통해 『원각경약초』의 卷首部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후대 개장본으로 『원각경약초』에 기본 序인 思齊述의 略鈔序가 없으나 을해자본 권수부 구성과 같다.

3.2.3.2 을해자번각본

세조연간에 을해자로 간행한 활자본이 있고 이후 普賢寺(仁宗 1年, 1545), 雙溪寺(光海君 3年, 1611), 龍腹寺(仁祖 12年, 1634), 仙巖寺(孝宗 6年, 1655), 靈井寺(顯宗 2年, 1661), 普賢寺(肅宗 7年, 1681) 등 여러 사찰에서 목판으로 번각 간행이 되었다. 을해자 번각본의 형태사항은 四周單邊에 半郭 24.5-26.0×19.7-20.5cm. 有界이며, 9行16字(小字21字) 註雙行으로 版心題 圓覺經이며 上下內向黑魚尾(有紋, 2-3葉花紋 混入)이다. 이외에도 變相圖가 있는 雲門寺(明宗 13年, 1588)본이 있으나 半郭 21.2×16.2 行자수 11行20字, 無界, 板心題 圓覺으로 다른 체제의 판본이다.

51) 고려교장프로젝트 남권희 조사본 참조.

① 보현사(인종 1년, 1545)

일본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소장본(韓1-66)으로 6권5책의 완질본으로 인종 1년(1545)에 보현사에서 간행되었다.⁵²⁾ 을해자와 동일한 권수부와 판식으로 半郭 25.7×19.8cm, 책 크기는 36.2×23.8cm이며 권2, 3만 象鼻가 大黑口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보각 인출인 듯하다. 권6末 ‘嘉靖二十四(仁宗 1, 1545)年歲次乙巳仲夏平安道寧邊地妙香山普賢寺開版’의 간기와 卷5末 大施主 朴末乙補 等 180명과 卷6末 大施主 徐從斤兩主 等 174명의 施主者가 확인된다. 欄上 頭註 筆寫와 口訣 筆寫, 卷6末 ‘主上萬歲萬萬歲’의 墨書가 있다.

② 쌍계사본(광해군3년, 1611)

권1-6의 6卷5冊으로 권6말 간기에 ‘萬曆三十有九(1611)年辛亥之夏智異山能仁庵刊移鎮于雙谿焉’으로 1611년(광해군 3)에 쌍계사의 말사인 능인암에서 간행하고 쌍계사로 옮긴 것이다. 진권 소장기관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규장각 2중(奎中), 숙명대, 연세대, 영남대 2중, 원광대, 중앙승가대 3중, 충남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송광사정보박물관, 원각사정보박물관이 있다.

그 중 송광사판본의 판각상태가 양호하며 권1末에 碧巖覺性(1575-1660)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國一都大禪師覺性’이라고 되어 있다. 권6末에 ‘萬曆三十九(1611)年辛亥菊月朔梅軒後裔謹跋’ 매현후예의 발문이 있다. 시주인명은 권1말에 寺 玉明 등 100여 명, 卷6末말에 芝略將軍柵百鈞靈加, 方板大施主李京旭, 供養大施主全仇叱 등 多數가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동일 판식, 간기를 가진 중앙승가대도서관판본 3종은 卷1末에 崇熙 등 180명, 권5末의 法淳 등 약 40명의 施主秩과 應俊 등 53명의 각수가 나타난다. 또한 영남대학교본 2중 중 1종은 권1, 2에 변상도가 보이기도 한다. 이에 쌍계사본은 선후 관계를 파악하여 정확한 인출연대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零本으로는 경희대, 범어사, 승가대가 권6 1冊을 소장하고 있으며 송광사본보다 인출상태가 떨어짐에 후쇄본으로 보인다. 권3 1冊을 소장한 원각사 또한 후쇄 번각으로 보인다. 표충사가 소장하고 있는 권3 1卷1冊은 송광사본과 동일본의 선본으로 파악된다.

③ 용복사(인조12년, 1634)

1634년(인조 12)에 용복사에서 을해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권5末 간기에 ‘崇禎七(1634)年甲戌仲夏京畿朔寧郡地水山龍腹寺開版’과 大施主 曹金竹兩主 尙正比丘 등 施主秩과 刊行秩이 본문 변란에 ‘希眼’, ‘金世’ 등의 시주자가 보인다. 용복사는 임진왜란(1592-1598) 이후 1628년부터 1636년까지 8년간 26종 이상의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한 사찰이다.⁵³⁾ 『圓覺經略鈔』 이외에도

52) 옥영정,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전적문화재 현황 및 특징,”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보고서: 일본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소장한국문화재』 제29권(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38-40. (원문이미지제공: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17. 11. 현재) http://kostma.korea.ac.kr/viewer/viewerDes?uci=RIKS+CRMA+KSM-WZ.1545.0000-20160331.NS_0434&bookNum=&pageNum=

53)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보』 63(2015. 9), 119-148.

인조 10년(1632)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休靜의 『雲水壇歌詞』, 『雲水壇』, 인조 11년(1633) 『禪家龜鑑』, 休靜의 『清虛集』, 인조 12년(1634) 休靜 『說禪儀』, 인조 13년(1635) 『天地冥陽水陸雜文』, 인조 14년(1636) 『楞伽阿跋多羅寶經』 등⁵⁴⁾ 惠淳이 주도한 강원교재, 의식서, 청허의 저작, 선서 등을 인출했다. 강원교재인 『圓覺經略鈔』 또한 화주 혜순의 주도하에 각수 組云, 法哲, 處俊, 戒能, 性甘, 印己 등과 목수 靈冷, 靈修와 공양 靈屹, 覺心 등과 별좌 志默이 관여하여 간행한 것이다. 전권 소장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영본은 고려대와 범어사에 권5, 계명대에 권1-2, 4-5, 하동법성선원(문화재자료 제600호)에 권3-6(권5 1-5장 缺落, 권6 1-3장 缺落)이 소장되어 있다.

④ 선암사(효종 6, 1655)

1655년(효종 6) 번각본으로 권6末 간기에 ‘順治十二(1655)年乙未之菊秋曹溪山仙岩寺刊版留鎮’ 선암사에서 간행하여 유진하였다. 권말에 각수 智演 등 25명이 판각에 관여하였다. 전권 소장기관은 경북대 2종, 동국대, 영남대 도서관과 범어사, 선암사정보박물관이 있으며 영본으로는 계명대에 권1, 3-6이 범어사에 권3, 6이 동국대(경주)에 권6이 2종 있다.

⑤ 영정사(현종 2년, 1661)

쌍계사본과 판식 및 형태사항은 같지만 耳格 하단부 시주자가 다르거나 墨等 隱文이 없는 번각본이다. 권6末에 ‘順治十八(1661)年辛丑六月日慶尙道密陽地載岳山靈井寺開板版留’ 간기가 있고 ‘夫乾道乃天地之經… 清波道人 謹跋 轉校 惠暉’인 혜휘의 초서 발문이 보인다. 本寺秩 山中大德 31명과 鉛化인 前判事 坦英, 前住持 冲熙, 冲一比丘道英과 首巧李時一, 冲絢 등 29명의 각수와 鍊板 唯禪 등 6명이 나타난다. 卷1末말에 ‘校 清波道人’과 大施主 李起男兩主, 大施主 慧根比丘 등 90명, 卷5末말 性湖比丘 등 36명, 卷6末에 大德慧根比丘 등 多數의 승속의 施主秩이 나타난다. 전권 소장기관은 동국대, 영남대, 중앙승가대도서관, 원각사정보박물관, 칠곡 송림사가 있다. 중앙승가대본은 卷1末에 각수질 없고 뒷속지 裏面에 ‘唐順宗問佛徒何方來…’ 목서가 있으며 ‘密陽郡表忠寺’ 사각주인이 있다. 零本으로는 표충사에 권3 2종, 범어사에 권6이 소장되어 있다.

⑥ 보현사(숙종 7년, 1681)

1681년(숙종 7)에 象鼻에 大黑口의 판식과 형태가 유사한 1545년 보현사 번각본으로 권5末 ‘康熙卅(1681)年辛酉三月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 간기가 있다. 권5末에 ‘主上三殿壽萬歲’의 축원과 安州, 順川, 熙川, 寧邊에 거주하는 大施主秩, 卞云 등 71명의 本寺 施主秩 및 간행질이 수록되어 있다. 보현사본은 都大化主 普應大師智運이 주도한 것으로 보응대사 지운은 다음해인 1682년 10권10책의 계환해 『楞嚴經』 개판에서도 都大化主로 나타난다. 더불어 보현사는 동년 法藏述; 宗密

54) 오용섭(2015), 127-128. ‘간행시기로 본 용복사 불서 도표’ 부분 발췌.

錄의 『大乘起信論疏』와 1680년(숙종 6) 知訥(高麗)의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初發心自警文』 大愚(朝鮮)集述의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등 지눌의 저작, 의식서, 강원교재 등을 꾸준히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⑦ 刊記未詳

사천 백운암 <유형문화재 제569호>는 卷4(46張) 1冊 零本으로 저자표기가 ‘綜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로 되어 있다. 半郭 21.0×16.9cm, 판심제는 圓覺으로 본문 3장이 缺落되고 1·2장과 마지막장은 후대에 목서로 필사 補入하였다. 9장과 11·39·49장에 ‘魯命’, ‘下同’, ‘金氏正月’, ‘金氏春伊’ 등 인명이 나타난다.

⑧ 운문사(명종 13년, 1588)

청도 운문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卷末에 ‘萬曆十六(1588)年戊子潤六月日慶尙道清道地雲門寺開版’ 간기와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의 왕과 왕비의 장수를 비는 발원문이 있다. 이 판본의 경판이 운문사에 장판되어 있으며 판식 四周單邊, 半郭 20.2×14.9cm, 無界, 행자수 11行20字, 上下向 2葉花紋魚尾, 變相이 있다. 책의 구성은 6卷 2冊으로 책1에 변상도(變相圖), 서(序), 권1-4, 施主秩(施主秩)이 있고 책2에 권5, 6과 施主秩이 있다. 운문사본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드물게 변상도가 있는 판본으로 권수에는 2매의 판에 4면의 반곽으로 구성된 변상도가 실려 있다. 名題는 變相으로 반곽마다 忍冬文을 연결한 欄廓 안에 1면은 위태천, 2-4면은 盧舍那佛說法圖가 3면으로 있다. 2매판인 3면 右 ‘公山本寺 智雲筆’을, 4면 左 ‘公山本寺 義璉刀’가 있어 畫師는 智雲, 刻手는 義璉임을 알 수 있다. 변상도가 있는 후대 판본은 乾鳳寺本(철종 12년, 1861)과 奉印寺本(고종 20년, 1883)이 있다.

전권 소장기관은 화봉문고, 부산 황련사가 있으며 영본은 동국대에 권1-4권, 칠곡 송림사에 권 5-6(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6호)이 있다. 황련사소장본(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7호)은 표제지는 黃紙이며 紅絲五針 선장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3.2.3.3 간경도감언해본 및 번각본

세조연간에 간인된 『원각경』 주석서는 세조 3년(1457) 9월에서 7년(1461) 사이에 如山註와 宗密序가 더해진 乙亥字本 『원각경약소초』, 세조 8년(1462) 敎藏都監본을 중수 번각한 『圓覺經大疏鈔』, 세조 10년(1464) 함허득통 『원각경소』, 세조 11년(1465년)에 국역 언해 『원각경약소초』, 동년 한 달 뒤 乙酉字口訣本 『원각경약소초』가 있다.

세조대 『원각경약소초』는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유통되던 판본과는 다른 권수부 序部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통되는 『원각경』 주석류 대부분은 간경도감에서 생산

유통된 것이다. 세조연간에 인출된 다양한 불서는 인쇄문화의 전형이 되어 큰 변화 없이 조선후기까지 판식과 서체를 유지하게 되는데,⁵⁵⁾ 이러한 주석서의 교학적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경도감언해본과 을유자구결본의 현존현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단 본 논문은 교장총록에 수록된 주석서를 우선하므로 『교장총록』에 수록되지 않은 합허득통의 주석서인 『원각경소』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각경약소초』는 上, 下 2권으로 구성된 『원각경약소』를 상세하게 주석한 주석한 것으로 간경도감 『원각경약소초』 언해본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 권수부 進箋文, 奉敎雕造, 序部(84張)와 卷上의 一之一(118張), 一之二(192張), 二之一(53張), 二之二(173張), 二之三(47張)의 5책, 卷下의 一之一(68張), 一之二(57張), 二之一(65張), 二之二(47張), 三之一(135張), 三之二(103張)의 6책으로 분권 되어 上, 下 2권의 11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각경약소』는 방대한 『원각경대소』를 축약한 것이고 『원각경대소』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원각경대소초』이다. 이러한 주석서의 상관관계로 볼 때 『원각경약소초』는 『원각경대소초』의 축약이기도 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간경도감 언해본을 『원각경대소초』의 주석서로 오인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원각경대소초』와 『원각경약소초』의 종말의 序 앞부분 약간만 대교해도 아래와 같이 7가지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차이만으로도 간경도감언해본은 『원각경약소초』의 저본임을 알 수 있다.

<표 5> 『원각경약초』 간경도감언해본과 『대소석의초』 경문 비교

| 대정장 大疏釋義鈔 | 보물970호_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
|--|---|
| … 於萬物①有未盡故更重之而有六畫備萬物之形象窮天地之能事故六畫成卦此乾之卦本以象天天乃積諸陽氣而成故此卦六爻皆是陽畫(一長爲陽畫二短相對爲陰畫)此既象天不謂之天而謂之乾者天是定體之名乾是體用之稱(即體之用)故說卦云乾健也言天之體以健爲用謂聖人作易本以教人欲使人法天之用不法天之體故名乾不名天也天以健爲用運行不息應化無窮此天之自然之理故聖人常法此自然而施人事亦當應物成務云爲不[巳]已終日乾乾無時懈倦是以因天象以教人事故大象曰(天以純剛故有健用今畫純陽之卦以此擬之故謂之象)②天行(運動之稱)健(強壯之名)③也天之自然象也萬物壯健皆有衰意唯天日行一度謂天體之行晝夜不息周而復始無時虧退劉表云然則天是體名乾是用名健是其訓④也君子以自強不息(用卦象自勉勵不可止息故云健也)文言⑤未云(夫子作文言以釋⑥正經也⑦)… | … 於萬物①變通未盡故更重之而有六畫備萬物之形象窮天地之能事故六畫成卦此乾之卦本以象天天乃積諸陽氣而成故此卦六爻皆是陽畫(一長爲陽畫二短相對爲陰畫)此既象天不謂之天而謂之乾者天是定體之名乾是體用之稱(即體之用)故說卦云乾者健也言天之體以健爲用聖人作易本以教人欲使人法天之用不法天之體故名乾不名天也天以健爲用者運行不息應化無窮此天之自然之理故聖人當法此自然而施人事亦當應物成務云爲不[巳]已終日乾乾無時懈倦是以因天象以教人事故大象曰(天以純剛故有健用今畫純陽之卦以此擬之故謂之象)②天行健(行者運動之稱健者強壯之名)③天之自然象也萬物壯健皆有衰意唯天日行一度謂天體之行晝夜不息周而復始無時虧退劉表云然則天是體名乾是用名健是其訓④君子以自強不息(用卦象自勉勵不可止息故云健也)文言⑤云(夫子作文言以釋⑥周易正經也⑦此下釋乾字云)… |

간경도감언해본은 『圓覺經略疏鈔』에 口訣은 世祖하고 翻譯은 信眉·孝寧大君·韓繼喜 등이 하여 成化元年乙酉(世祖 10年, 1465)에 완성한 것이다. 卷首部 구성은 간행사항이 포함된 黃守身의

55)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 과 圓覺經 의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20(2008. 10). 7.

進圓覺經箋 및 奉敎雕造官員이 보이고 다음으로 序部는 기본 序인 思齊述의 ‘略鈔序’와 裴休序를 주해한 如山註가 포함된 ‘略疏序’ 그리고 종말의 ‘圓覺經序’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표기 또한 을해자본 표기인 ‘圭峯蘭若沙門宗密於大鈔略出’이 아닌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疏鈔’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권수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간경도감 인출본으로 형태사항 및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20.3-21.8×18.5cm, 책 크기 32.1-32.5×22.5-23.8cm이며 판심제는 圓覺(序部: 圓覺經), 有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행자수는 9行17字 註雙行이다. 대자약소경문 17자에 구결이 있고 다음으로 작은 伯圓(o) 아래 구결 없는 약초 구문을 달았다. 그 후 다시 큰 伯圓(○)을 달고 약소 해석과 다음으로 魚尾괄호(〰) 안에 약초를 해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고할 것은 경명해설이 시작되는 서분부터인 卷上一之二부터 경문 이외 下一格이 나타난다.

간경도감본은 1465년(세조 10) 인출본과 1472년(성종 3) 인출본의 두 계통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권수 제3행 ‘御定口訣’과 제4행 ‘慧覺尊者臣僧信眉孝寧大君臣補仁順府尹臣韓繼禧等譯’이란 기록의 유무⁵⁶⁾로 3-4행이 있는 판본을 1465년(세조 10)본으로 보고 있다.

1465년(세조 10) 인출본은

① <권하2-1-2-2>: 간경도감언해본(1465, 세조 10년), 서울대규장각(一簣 古貴 294.33-W49bd) 卷下 二之一과 二之二 1冊으로 卷下 二之二的 3행과 4행의 기록 정보가 있으며 47장 이하가 缺落되어 있다. 보상화문양 홍색5침 선장본으로 薰精紙가 섞여 있는 半郭 21.8×18.0cm, 책 크기 32.0×23.2cm이다

② <권하1-2>: 간경도감언해본(1465, 세조 10년), 동국대도서관(고서 D 213.18 원11下) 下卷 一之二 1冊으로 半郭 21.6×18.1cm, 책 크기 32.3×23.2cm이다. 서울대규장각(一簣 古貴 294.33-W49bd)본과 동일한 표지와 판식을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듯하다.

③ <권상1-2>: 간경도감언해본[1465, 세조 10년], 서울대규장각(가람古貴 294.334-Si65w) 卷上 一之二로 第1-3(3張)과 192張 이하가 缺落된 189張으로 薰精紙가 섞여 있다. 半郭 21.8×18.5cm, 책 크기는 32.4×23.8cm, 四針眼訂 零本 1冊으로 表紙書名은 ‘圓覺經諺解’이고 版心은 圓覺이다. 인출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판식이나 지질로 보아 간경도감본으로 추측된다.

④ <권하3-1-2>: 간경도감언해본[1465, 세조 10년], 서울대도서관(심악貴 294.336 T788tKs) 卷下 三之一-二의 103張 이하가 缺落된 2冊1函의 零本으로 半郭 21.1×17.8cm, 책 크기 30.8×23.0cm

56)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전자불전』 4(2002. 12), 43.

으로 1465년 인출본으로 규정되고 있다.

1472년(성종 3)의 인출본은

仁粹大妃가 돌아가신 世祖와 睿宗 및 부왕의 趙生淨界 그리고 貞熹大王大妃, 主上, 王妃의 수복을 빌기 위해 29종 2,815부라는 방대한 종수와 부수를 인출하게 한 것으로 판각상태가 매우 양호하나 3행과 4행이 삭제되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① <권상1-1,2-1-3,권하1-1-2,2-1-3>: 간경도감언해본, 국립중앙박물관(보물 970호)

卷上 一之一, 二之一-三, 卷下 一之一-二, 二之一-三의 零本으로 3행과 4행의 기록정보가 없다. 그러나 卷上 二之三과 卷下 一之一的 欄上에 校正印(四角朱印)이 있으며 卷末 裏面に ‘中校金繼湘 三校咸洙同朴石全’의 墨書가 있어 종교와 삼교를 거친 교정 초인본임을 알 수 있다.

② <권상2-2-2-3>: 간경도감언해본(1472, 성종 3년), 고려대도서관(육당 貴 16-1)

卷上 二之二-二之三으로 半郭 21.4×18.2cm, 책 크기 32.2×23.1cm이다. 卷上 二之二的 卷首題면은 缺落이고 二之三 권수제 3행과 4행의 기록정보가 없으며 국립중앙도서관본과 판본이 동일하나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③ <권하1-1,1-2,2-1,2-2>: 간경도감언해본, 원각사(경기도유형문화재 제286호)

卷下 一之一, 一之二, 二之一, 二之二 4册책으로 半郭 21.5×18.0cm, 책 크기 32.0-33.9×22.8-23.2cm이다. 卷下 一之一的 경우 前7張의 缺落과 藁精紙가 섞여 있다. 전체적으로 변색과 오염이 심한 편이며 卷下 二之二的 제44장의 경우 필사본이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아세아문체연구소 육당문고 下 二之二-三, 下 三之一-二의 跋文에 ‘成化八年(1472)夏六月初吉…金守溫謹跋’과 일본 田川孝三 소장 上 二之一, 二之三이 있는 것으로 보이⁵⁷⁾나 이 판본들은 찾지 못했다.

간경도감언해본은 이후 번각본은 龍泉寺(宣祖 6年, 1573), 安心寺(宣祖 8年, 1575) 있고 안심사후쇄본 1614년, 1638년에 있고 1932년 한용운에 의해 보각 인출되기도 한다.

번각본은 1472년 간경도감언해본과 같은 구성으로 권수부에는 進圓覺經箋 및 奉教雕造 서가 동일하게 보이고 3행-4행이 삭제되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른 점은 난외 인명이 나타나며 版口는 白口이고 어미에 문자 또는 混葉花紋이 混入되고 권 구성이 달라져 序部(91張), 卷上의 一之一(118張),

57) 김무봉(2002), 44.

一之二(97張), 一之二(98-192張), 二之一(86張), 二之二(87-173張), 二之三(第1-47張)의 6책, 卷下 一之一(68張)-一之二(57張), 二之一(65張)-二之二(47張), 三之一(135張), 三之二(103張)의 4책으로 분책되어 총 2卷 10冊이다.

① 용천사(선조 6년, 1573)

국립중앙박물관(新收-015362)에 卷上 二之二-三, 卷下 三之一-二의 2권이 소장되어 있다. 半郭 21.4×18.3cm, 책 크기 32.1×23.4cm이며 刊記에 따르면 全羅道 潭陽地 秋月山 龍泉寺에서 萬曆癸酉年(1573) 4월 초과일에 간행되었고 施主秩에 變相施主 있으나 현존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⁵⁸⁾

② 안심사(선조 8년, 1575)

국립한글박물관, 서울대규장각과 동국대도서관, 원각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 국립한글박물관본(한구264)은 卷上(序) 91張, 卷上 一之一, 卷下 二之二 3冊이다. 半郭 20.5-21.5×18.1-4cm, 책 크기 33.5-8×23.6-33.6cm이다. 卷上末에 왕실의 장수를 비는 발원 및 간행과 관련한 간기와 발문이 있다. 全羅道 安心寺에서 번각 개판하였음을 ‘萬曆三年(1575)正月望前有日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版’을 통해 알 수 있다. 重刊施主秩 校正前唄葉寺住持 謹然, 大施主宋高然兩主 玄甘, 尙淳, 校正化主 天日 등이 나타난다.

③ 1614년 (안심사후쇄, 광해군 6년)

1614년(光海君 6) 안심사본의 후쇄 인출기가 있는 동국대도서관본(고서D 213.18 원11 v.4)은 卷上 一之二 1冊이 있다. 卷上 一-二의 후반부인 108張부터 193張까지이며 半郭 21.0×18.5cm, 책 크기 31.7×23.2cm이다. 난외에 戒行(109張), 玄機(111張), 朴吉順(113張) 등의 인명과 권말 표제지 이면에 ‘萬曆四十二(1614)年甲寅十一月日 印經大施主□代兩主’ 인경 시주자가 목서되어 있다.

④ 1638년 (안심사후쇄, 인조 16년)

서울대규장각본(古 1730-9C v.1-7)은 卷上 一之一, 一之二, 二之一-二之二, 二之二-二之三, 卷下 一之一, 一之二-二之一-二之二, 三之二 7冊으로 半郭 21.0×18.5cm, 책 크기 32.5×23.0cm이다. 卷下末에 黃守身の 箋 및 조조관원의 명단이 없으나 跋에 ‘萬曆三年(1575)正月望前有日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과 卷末에는 ‘崇德三年戊寅(1638)春印經’ 목서로 안심사 후쇄본임을 알 수 있다. 목서 필사로 大禪師 覺性, 大禪師 太能, 大禪師 太湖, 大禪師 印文, 大禪師 琢珪, 大禪師 應祥, 大禪師 一仁, 金春鶴 등의 施主秩과 연화, 공양, 별좌의 緣化比丘 天明, 供養主比丘 青眼, 別座比丘 性悟 등이 보인다.

58) 김미경(2010), 30.

⑤ 1932년 안심사보각본

1932년 10월에 만해 한용운에 의해 보관 및 채수정을 하여 인출을 되었다. 안심사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序部の 장수가 84張으로 줄고, 권수부의 黃守身의 進圓覺經箋 및 조조관원의 명단이 卷下 三之二末에 나타난다. 半郭은 21.2×18.2cm, 책 크기 31.2×22.2cm 난외에 시주자를 지운 묵등과 어미 일부에 2葉花紋魚尾 混入된 보각판이 보인다. 전권은 서울대규장각, 동국대도서관, 원각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규장각본(가람 古 294.334- B872w-1465-v.1-10)은 전권으로 黃守身의 箋 및 조조관원의 명단이 卷下 三之二末에 나타난다.

동국대도서관본(석전D213.18 종39c서)은 序部(84張)의 1冊으로 卷首에 ‘甲戌(1934)十二月二十一日 无涯記’로 无涯가 1934년에 기록한 印出流通墨書記가 나타난다. ‘圓覺經諺解 十一卷十册板本 由來 …’ 本書는 壬申(1932)十二月에 佛敎社에서 印行한 것이다. 半郭은 20.9×18.6cm, 책 크기 31.0×22.0cm, 난외 印田, 智雲, 信庵比丘 등 인명과 묵등이 발견된다.

원각사성보박물관본은 卷上 序部(84張), 一之二, 二之一--二之二, 二之二--二之三, 卷下 二之一--二之二, 三之一, 三之二 7冊으로 구성되었으며 卷下 三之二末 1465년 原刊記, 및 文圓覺經箋이 있다.

⑥ 刊記未詳

안심사본 중 간기가 미상인 서울대규장각본은 5종과 동국대도서관, 사천백운암본이 있다.

서울대규장각본(古 1730-9A)는 卷上 一之一--二와 上 二之二的 零本 1冊이다.

半郭 22.0×18.5cm, 책 크기 33×23.5cm으로 상권 권수부 72張 이전과 92張 이후 缺落이며 二之二는 17장까지 있는 낙장본이다.

서울대규장각본(古 1730-9B)는 卷上 二之三 卷下 一之一 1冊으로 半郭 21.0×18.3cm, 책 크기 35.5×23.3cm로 간기가 없다. 안심사본인지 한용운 보각본인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대규장각본(古 1730-9-v.1-10)은 완질본으로 半郭 20.5×18.5cm, 책 크기 31.0×22.0cm이며 了熙, 靈印 등의 난외 인명과 卷首에 進圓覺經箋 및 조조관원의 명단이 있어 안심사본으로 보인다.

서울대규장각본(一簣 古 貴 294.334-si65d)는 卷下 三之一 3張 前 缺落 1冊으로 半郭 21.0×18.4cm이며 책 크기 32.4×23cm이다. 난외에 인명이 없어 원간본처럼 보이나 판심에 遊文이 판각된 것으로 볼 때 안심사보다 이전본으로 보인다.

서울대규장각본(一簣 古 294.33-W49b)는 卷上 二之二 43張 前 缺落인 1冊으로 半郭 21.3×18.4cm, 책 크기 31.2×23.0cm이며 智明, 宗慧, 全英, 智行 등 난외 인명이 보인다. 안심사본으로 추측된다.

동국대도서관본(D213.18원11×3 v.2,v.5)는 卷上 一之一, 上二之一--二之二 2冊으로 21.0×18.1cm, 책 크기 31.0×22.0cm이다. 제책으로 난외 인명은 보이지 않으나 <一簣 古 294.33-W49b>의 어미부분이 동일하여 안심사본이나 인쇄상태로 봐서는 후쇄로 보인다.

사천백운암본(유형문화재 제568호)는 卷下 二之一 1冊으로 半郭 21.1×18.5cm, 책 크기 33×23.5cm

로 어미에 2葉花紋魚尾 混入있다.

안심사본은 꾸준히 인경 되어 왔고 이후 1932년 한용운 보각관이 안심사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존 간기가 없는 후쇄본과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

3.2.3.4 乙酉字구결본 및 번각본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이 인출된 세조 11년(1465) 같은 해에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鄭蘭宗의 글씨를 銅活字로 만들어 간행한 을유한글자본이다. 간경도감 『원각경약초』 언해본과 동일한 권수부, 저자표기, 권수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판식은 四周單邊, 半郭 19.5×13.2cm, 책 크기 26.9-28.4×18.1-6cm, 有界, 白口, 上下黑魚尾, 판심은 圓覺이고 藁精紙가 섞여 있다. 행자수는 6行13자로 대자약소 13자에 구결이 있고 그 아래 큰 伯圓(○)을 달고 약소초 19자를 판각한 것으로 언해가 빠진 형식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각경』 乙酉 한글자본의 원간본은 다음과 같다.

<표 6> 『원각경약초』 간경도감 을유자구결 유통본

| 소장자 | 권차 | 유물번호 |
|---------------|------------------------------------|---------------------|
| ① 일본동경대학오구라문고 | 권상1-1 | L44816 |
|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 권상1-1 | 보물 1514호 |
| ③ 서울대규장각 | 권상1-2 | 가람 古貴 294.334-W49f |
| ④ 아단문고 | 권상1-2, 권하1-1-2-2 | 보물 제1219-1호 |
| ⑤ 국립중앙도서관 | 권상1-2, 2-1-2-3, 권하1-1-2-3, 3-1-3-2 | 일산貴1740-5 |
| ⑥ 동국대도서관 | 권상2-2, 권하3-1-3-2 | 고서D213.18원11 卍v.上,下 |
| ⑦ 하남 광덕사 | 권상2-2, 권하3-1-3-2 | 보물 제1219-2호 |
| ⑧ 월정사 성보박물관 | 권상2-2-2-3 | 보물 793-11호 |
| ⑨ 부산 기장 취정사 | 권하1-1-1-2, 2-1-2-2 | 보물 제1219-3호 |

서울대규장각본(가람 古貴 294.334-W49f)는 藁精紙가 섞여있으나 인쇄가 선명하지 않고 묵서 흔점이 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본(보물 793-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로 표제지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일산貴1740-5)는 석왕사의 고승 涵月 海源(1691-1770)의 수택본⁵⁹⁾이다. 전해지는 활자본 을유자 판본은 많지 않으나 전체를 합치면 완질이 된다.

구결을유자 번각본(목판본)은 서울대규장각과 부산대성사에 소장되고 있다.

서울대규장각본(가람 古 294.334-W49d)는 序3部(50張)와 卷上一之一의 1冊(61張)이나 목판본

59) 김미경(2010), 34.

으로 어미에 문자 또는 2葉花紋이 混入되고 있다.

부산 대성사본(부산광역시문화재자료 제87호)은 卷下 一之一~二 1冊으로 목판본으로 후대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3.2.3.5 일본유통본

① <권제5(1)>: 일본刊本(五山版), 身延山久遠寺文庫 소장

일본 山梨縣南巨摩郡身延町 日蓮宗總本山의 久遠寺文庫본은 零本 권5의 1卷1冊이다. 표지서명은 '圓覺經略疏鈔'이며 판심제는 '圓鈔'이며 판식은 無界, 8行21字, 上下雙邊, 註雙行, 半郭은 23.3×13.6cm, 책 크기는 27.2×17.3cm이다. 장차표시가 7行과 8行 사이에 나타나는데 권자본이 포배장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으로 송판번각본으로 『수소연의초』와 같은 피휘가 발견되며 교장과 서체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② <제1-12>: 일본刊本(1648, 慶安元年), 龍谷大 소장

12卷 12冊 전권본으로 에도(江戶)시대 慶安元年(1648) 교토(京都)에서 敦賀屋久兵衛가 간행한 것이다. 권수부와 저자사항은 대정장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판식은 半郭 22.2×12.2cm. 책 크기는 26.0×19.4cm이다. 四周雙邊, 無界의 10行20字, 註雙으로 版心은 上下內向 3葉花紋魚尾의 中黑口이다.

③ <권제1-11>: 일본刊本(江戶시기), 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

'帝國圖書館藏'의 전각체 책판문양이 있는 황색 표지의 5침안의 선장본으로 개장보수 하였으며 본 표지는 紺色이다. 권12가 없는 零本으로 간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판식과 판형으로 볼 때 龍谷大本과 동일한 본으로 추정된다.

3.3 『道場修證儀』類

3.3.1 『圓覺道場修證儀』18卷

『圓覺經修證儀』, 『圓覺經廣修證儀』, 『圓覺道場禮懺禪觀等法事』(이하, 『圓覺道場修證儀』)의 이명으로 불리며 禮懺과 禪觀 등의 수행 의례와 규칙에 대한 주석서이다. 『원각경』에 근거하여 수행자의 실제 수행과 종교 행사에서 행하는 좌선관법과 懺悔滅罪의 법을 밝히며 예배하는 행법을

60) 2017년 6월 26일 동아시아 『高麗諸宗教藏』 한, 중, 일 문헌 통합조사 신연산문고 남권희 조사 참조.

화엄과 선의 행법을 결합하여 정의하는 특징이 있다. 『圓覺道場修證儀』는 中國 佛教儀禮史의 가운데서 一行慧覺이 찬술한 『華嚴經海印道場懺儀』와 나란히 唐代의 佛教儀禮書로 인정되고 있다.⁶¹⁾

현존 유통본으로는

① <권제5-7>: 刊經都監복간본(간기미상, 목판본), 송광사舊藏本(현소장처 미상)

간기 및 원간본 간행정보 미상인 『圓覺道場修證儀』는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권제5-6(2권1책)과 권제7의 서지정보 및 권수 권말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권수제와 권미제 ‘圓覺道場禮懺禪觀等法事文’이며 저자표기는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로 본문 내 墨蓋子 隱文이 나타난다. 판식은 有界, 전광 20行16字 註雙行으로 권5-6은 전광 22.5-23.5×42.5cm, 上下單邊左右雙邊, 책 크기 33.7×27.0cm 確立私鬻의 제침제명은 ‘圓覺道場禮懺禪觀等法事’이다. 권7은 광고 22.5-23.0cm, 四周單邊, 크기 33.0×23.6cm으로 제침제는 ‘圓覺經修證儀卷七’이다. 권5-6과 권7은 원래 형식에서 새롭게 製冊되면서 변란의 형태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② <권제1-4, 6-11, 13-14, 17-18>: 기타刊本(趙成金藏本), 中國國家圖書館 소장

권자본으로 권수제는 ‘圓覺道場禮懺禪觀等法事’이며 변상도가 있고, 上下單邊, 有界, 전광 20行 16字 註雙行이다. 송광사본과 같이 본문 내 墨蓋子 隱文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아직 미조사인 신출본으로 권2의 卷首, 卷尾題가 缺落된 전체 27장의 가철 선장본이 있다.

3.3.2 『圓覺禮懺略本』 4卷

『圓覺禮懺略本』은 종밀이 『圓覺經道場修證儀』의 방대한 수행을 계승하면서도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략 만든 禮懺을 위한 儀式集이다.⁶²⁾ 宗密이 당시 佛道修行에 있어서 실천 수행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한 의도가 엿보이며 특히 禮懺法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보면 수선행위의 기본을 철저하게 佛前懺悔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⁶³⁾

현존유통본⁶⁴⁾으로는

① <권제1-2>: 刊經都監복간본(추정), (김병구舊藏)

원간본 간행정보는 壽昌3年丁丑(肅宗 2年, 1097) 興王寺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소장

61) 김경숙(지은), 106.

62) 라정숙, “宗密의 『圓覺禮懺略本』 분석,” 『불교연구』 39(2013), 185.

63) 김경숙(지은), 108.

64) 『圓覺禮懺略本』의 현존본 연구는 南權熙, “새로 發見된 高麗續藏經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6(1989), 33-67. ; 라정숙, “宗密의 『圓覺禮懺略本』 분석,” 『불교연구』 39(2013), 181-209.

처 미상이다.⁶⁵⁾

② <권제3-4>: 刊經都監 복간본(추정),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권차가 다른 김병구 구장의 간행정보와 동일한 원간본이다. 上下單邊 전광 27行20字, 匡高는 24.0cm, 책 크기 35.4×30.9cm인 권자본으로 판각되었지만 후대에 선장 형태로 제책한 것으로 보인다.

표제서명은 없으며 권수제 다음에는 저자사항이 ‘終南山草堂寺沙門 宗密 述’로 표기되어 있다. 판미제는 ‘圓覺略懺’이나 권3의 제25, 26장의 경우 판미제가 ‘圓覺禮懺略本’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권3 ‘將任郎諸陵令同正臣金俊奭書’와 권4 ‘明書業及第臣宋翰書’의 서사자와 권4 ‘講華嚴經興王寺大寺賜紫臣 聰敏 校勘’, ‘講華嚴經興王寺大寺賜紫臣 顯雄 校勘’, ‘講華嚴經興王寺大寺賜紫臣 性英 校勘’ 교감 기록과 ‘壽昌三年(1097)丁丑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원간기가 나타난다.

3.3.3 『略本修證儀』 1卷

송의 정원이 『圓覺經修證儀』를 간소화하여 『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를 지었다. 그러나 현존본은 보이지 않고 다만 대정장(『근續藏』 X74 No.1476)에 남아 있다.

4. 결 론

중국에서 성립된 『원각경』은 종밀의 주석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대표경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종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불교도 『원각경』을 일찍부터 주목하였기에 종밀의 주석서가 주로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 간행된 다수의 주석서가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교장총록』 수록 주석서의 편성체계를 통해 경전에 의해 발생하는 주석서들을 포괄적 廣意에서 세부적 狹意로 전후 개연성을 두고 배치되었고 같은 群集에서는 조사 연대와 종조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원각경』 주석서 관계를 살펴보면 大疏類, 略疏類, 修證儀類, 疏解類, 喪序類, 章解類 순으로 교학과 수행을 학습할 수 있는 편성체계임을 확인하였다. 『교장총록』에서 보여 지는 불교주석서 편성체계는 각 종파불교(諸宗)의 주석서를 통해 불타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수행과 깨달음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교학을 수학하기 위한 의천의 독자적인 배치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총록』에 편성된 주석서를 기준으로 현존본 주석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려 후기 의천의

65)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고려교장프로젝트, 2012).

교장도감을 통해 『圓覺經大疏』類, 『圓覺經略疏』類, 『圓覺經修證儀』類 등이 고르게 인출·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초기는 세조를 통해 교장도감번각본과 한문주석서인 을해자『圓覺經略鈔』, 『圓覺道場修證儀』, 『圓覺禮懺略本』이 유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출된 한문본 불서는 『교장총록』에 수록된 주석서류가 다수로 의천이 수집하여 판각한 교장이 주를 이룬다. 이는 세조이후 간경도감에서 주로 간행된 신앙에 필요한 불교서 간행과 비교되며 주석서를 통해 교학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교학 불교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간경도감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卷首部 구성을 가진 언해본과 을유자구결본 『圓覺經略鈔』는 교학적으로나 인쇄문화적인 전형이 되어 조선후기까지 『원각경』 주석서의 표준으로 간인·유통되었다.

국내 『교장총록』 수록 『원각경』 주석서 유통 종수는 『圓覺經大疏鈔』 1종, 『圓覺經略疏』 1종, 번각본 1종, 『圓覺經略鈔』 을해자본 1종, 을해자본번각본 6종, 『圓覺經略鈔』 간경도감 언해본 2종, 언해본번각본 3종, 『圓覺經略鈔』 을유자구결본 1종, 을유자구결번각본 1종, 『圓覺經略鈔』 기타 간본 1종, 『圓覺道場修證儀』 1종, 『圓覺禮懺略本』 1종의 총 20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존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圓覺經略鈔』이다.

일본의 경우 지면관계상 『圓覺經略鈔』는 신지 못했으나 『교장총록』 수록 『원각경』 주석서가 고르게 유통되고 현존함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각경』의 주석서를 통해 교선일치를 주장하는 종필의 주석서가 가지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선일치를 배우고자 하는 先代 학자들의 교학적 흐름과 방향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경전의 주석서류의 계통분석에도 『교장총록』 주석서의 편성체계를 적용하여 현존본의 관계 파악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원전]

『高麗藏』 13 No.842.

『開元釋教錄』 9 (『大正藏』 55).

『근新續藏』 9 No.0243.

『無衣子詩集』 (『韓佛全』 6).

『大覺國師文集』 (『韓佛全』 4).

『大正藏』 17 No.842.

『佛祖統紀』 14-18.

『新纂卍續藏』9 (No.243).

『新編諸宗教藏總錄』3卷 (『韓佛全』4; 『大正藏』55 No.2184).

『玉岑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 『慧因寺志』卷之六碑記 72.(『中國佛寺史志彙刊』20 No.0017).

『원각경』(大正藏) 17 No.842).

『圓覺經大疏』(『卍新續藏』9 X.243).

『圓覺經大疏鈔』(『卍新續藏』9 X.245).

『圓覺經修證儀』(『卍續藏經』(新文豐版) 128).

[단행본]

[佛書解說大辭典編纂會 編]. 『佛書解說大辭典 第1卷. ア-オ』. 東京: 大東出版社, 39[1964].

境野哲. 『支那佛教史講話 上』. 東京: 共立社, 昭和2[1927].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図板卷上. 京都: 便利堂, 昭和12[1937].

望月信亨. 金鎮烈 譯. 『佛教經典 成立의 研究』. 서울: 불교시대사, 1995.

佛書解說大辭典編纂會 編. 『佛書解說大辭典』1卷.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43[1968].

옥영정.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전적문화재 현황 및 특징.” 『일본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 도서관소장한국문화재』.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이지관. 『가산불교대사람』.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鄭承碩 編. 『佛典解說事典』. 서울: 民族社, 1989.

조운호. 『동아시아불교와 화엄사상』. 서울: 초롱, 2003.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믿음사, 2006.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고려교장프로젝트, 2012.

홍법원편집부. 『불교학대사전』. 서울: 홍법원, 2001.

[학위논문]

김경숙(지은) “『원각경』의 修行論 研究 圭峰宗密의 思想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東國大學校대학원. 2001.

김미경. “『원각경』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한성대학교대학원. 2010.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대학원. 1982.

卞惠敬. “己和의 『圓覺經說誼』 研究.”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2005.

조운호. “『圓覺經』と宗密の『圓覺思想』.” 박사학위. 東京大學. 1998.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 동국대학교대학원. 2006.

[학술지]

- 김두진. “義天의 天台宗과 宋·高麗 불교계와의 관계.” 『仁荷史學』 10(2003). 189.
- 김무봉. “조선시대 간경도감의 역경사업.” 『전자불전』 4(2002. 12). 7-53.
- 김성수.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高麗 諸宗教藏과 華嚴經 章疏』 (서울: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2014).
- 남권희. “간행본 敎藏의 서지분석.”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의천의 敎藏, 천년의 지혜를 미래로』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3).
- 南權熙. “새로 發見된 高麗續藏經 覆刻本 3種에 관한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6(1989). 33-67.
- 大屋徳城.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15권 3호(大正15:1926). 285-362.
- 라정숙. “宗密의 『圓覺禮懺略本』 분석.” 『불교연구』 39(2013).
- 박상국. “祇林寺 毘盧舍那佛像 腹藏經典에 대하여(하).” 『서지학보』 2(1990). 133-156.
- 송일기.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1호(2015). 223-246.
- 신규탁. “화엄 5조 종말의 법성교학 현양.” 『禪學』 35(2014). 197-230.
-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보』 63(2015. 9). 119-148.
-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楞嚴經과 圓覺經 의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20(2008. 10).
- 場次了榮. “圓覺經翻譯年代考.” 『六條學報』 158(1914. 12). 37-42.
- 曹潤鎬. “『円覺經』解明の視點:經典成立史的觀點から.” 『インド哲學佛敎學研究』 4(1996. 12). 54-66.
- 조은수, 서정형. “불교의 주석 전통과 과문(科文)의 발달.” 『불교학연구』 41(2014).
- 池田魯參. “圓覺經道場修證儀の禮懺法(覺書).” 『印度學佛敎學研究』 35(1986)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고찰.” 『서지학보』 31(2007. 12). 115-161.
- 湯次了榮. “圓覺經註流漸觀.” 『無盡燈』 第18卷 第8.9(1913). 29-35.